

민생당 '연합정당 참여' 결론 못내려



민생당 천정배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총서 평화당·대안신당계 찬성...바른미래계 '반대' 법원 '비례 8명 셀프제명' 취소에 교섭단체 일시 확보

민생당은 17일 법원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한지봉 세계주의를 드러내면서 최종 결정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계와 대안신당계 의원들은 17일 법원 비례연합정당 참여 찬성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바른미래계는 참여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계 박주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미래당, 녹색당, 시대전환, 소상공인당 등

정치 세력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 소수당은 박근혜 탄핵 세력이 부활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도 제시한다. 민생당은 이 두 목적 외에도 연합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계 천정배 의원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라도 비례연합정당은 민생당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뜨게 돼 있는 것 아니냐"며 "참여하지 않으면 민생당이 어려울 것이다. 명분이든 실리든, 원칙이든 실익이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바른미래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를 비롯해 원외 최고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최고위-국회의원 연석회의 형태로 의총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공동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와 관련된 안전 상정-결과는 하지 못했다. 특히 바른미래계 김정화 공동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부끄러운 정치"의 악순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운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통째로 당을 팔아넘기려는, 숨겨진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

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제명 방식으로 당적을 이동한 의원 8명에 대한 당원제명절차취소기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날 밤 9시 의원 총회를 다시 소집,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원내지도부 선출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삼·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은 민생당 소속이 됐다. 이들 가운데 미래통합당 공천을 확정지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삼 의원 등은 민생당 탈당 후 통합당 입당을 통해 총선에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태규 의원도 탈당을 통해 국민의당에 합류할 방침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비례연합정당 '시민을 위하여'

공식 파트너 선택...실무작업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4·15 총선 민주·진보·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모인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를 연합정당 파트너로 공식 선택하고 원외 정당을 모아 총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으로 삼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협약했다. 민주당은 "매우 촉박한 비례후보 등록 일정

을 감안했을 때 '시민을 위하여'가 정당 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대외적으로 설명했다. 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는 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힌 녹색당과 미래당 등 원외 정당과 접촉해 '범여권 빅텐트'를 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이후 비례대표 후보 배정과 순번 결정 등 실무 작업 '속도전'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 확정

TK 지원에 1조원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원안(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 결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의 설명에 따르면 3당 간사는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천억원 등 총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됐다. 이중 1조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추가 편성됐고 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됐다. 정부의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전력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형배 "금품 살포 사실이면 정계 은퇴"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무고 땀 박시종 후보 사퇴해야" 박시종 "사퇴 제안, 경선 판 뒤엎으려 벌인 이벤트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예비 후보는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민 후보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박시종 후보 측이 제기한 금품살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경선 결과에 관계 없이 사퇴하고, 아예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면서 "마찬가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박 후보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박 후보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가짜뉴스 정치공작의 주범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정 짓겠다"며 "박 후보

측이 3류 정치공작, 파렴치한 흑색선전을 기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즉시 무고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시종 후보는 "민형배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산을 재경선을 두 후보가 정치생명을 놓고 벌이는 게임으로 희화화 시켰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오늘의 사퇴제안은 민형배 후보가 벌인 경선판을 한 번에 뒤집기 위해 벌인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박시종 후보 측은 "민 후보가 지난 1월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열린 한 배드민턴클럽의 회식자리에 참석해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월 31일 밤 10시쯤 광산구 수완지구 한 술집에서 민 후보 측

이 '배드민턴 클럽 회식자리에 참석해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를 토대로 선관위에 당시 회식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진실을 가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 유럽 확산에 재외 투표율 하락 우려

다음달 1~6일 176곳서 진행...이동 금지 조치, 투표 길 막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21대 총선에서 재외 투표일 정 차질과 투표율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 투표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 각국의 한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등 176개소에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가 진행된다. 문제는 미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리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전국 봉쇄령을 내리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이출을 금지했다. 미국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우선 뉴욕주 도시봉쇄에 들어갔다.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덴마크 등 많은 나라에서 도시 봉쇄가 되고 있으며 국경 봉쇄를 단행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한국처럼 유권자 거주지역마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재외선거 특성상 거주국의 이동 금지 조치는 투표할 길을 원천적으로 막게 된다. 더욱이 항공 노선의 축소·중단으로 투표함의 회송 방법이 쉽지 않은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함 회송과 관련하여는 입국 제한 조치가 없는 제3국을 경유해 이송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동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5-5530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장 222-8171

남구 · 남부 675-5530 · 백운 651-1833 · 봉선 675-5530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우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운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451 · 광산 944-0444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발달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0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0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광고서 남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에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조달우수제품/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 환경표지/ KS인증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오행,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